

내 마음의 그린라이트

“ 하늘에는 별이 있고 사람 속에는 도덕적 의식이 있다”

양심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 중요한 덕목임을 가르쳐 주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과 사심이 있는데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 곧 양심이고, 반대로 물욕에 의해 발동되는 마음이 사심입니다. 이 사심을 경계하기 위한 최선이자 최고의 방법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은 늘 나한테 있고,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한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연 수기 독후감을 보며, 생각보다 높은 참여 의식과 좋은 글에 새삼 놀랐고 일상 곳곳에 깨어있는 윤리 의식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청렴한 마음을 ‘깨끗한 곰돌이’로 표현한 ‘내 마음 깨끗한 곰돌이 인형 처럼’이라는 글은 실제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 색이바랜 곰돌이 인형을 깨끗한 곰돌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해 부당한 이익을 욕심내지 않았던 자신의 그 때 그 시절을, 당시 추억이 담긴 인형을 통해 환기시킨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은이처럼 청렴결백을 제 아무리 지키고자 해도, 계속되는 은밀한 유혹 앞에서 막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청렴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붙잡은 양심은 더 크게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일깨워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 깊숙한 곳에 자신만의 답을 갖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우선시 하면서 살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지만, 보편적으로 윤리의식에 어긋나는 마음과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스스로가 떳떳해지고 타인의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적당히 주고 받고 살면 되지 얼마나 깨끗하게 산다고 청렴을 논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티내지 않아도 모두들 청렴한 사람을 우러러 보는 게 삶의 이치입니다.

‘군대에서 부하가 직속상관에게 충격을 드리다’는 글은 제목부터 청렴에 대한 당당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글쓴이는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도 군대처럼 수직관계가 확실한 조직에서는 내 의견을 쉽게 얘기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건의했고, 상관은 한참 아래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 또한 인정하며 조직의 오래된 관습을 시정했습니다. 목살 할 수도 있었지만, 부하의 청렴한 모습에 윗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대목입니다.

어쩌면 이 글처럼, 우리 사회 어느 면에는 당연히 돼버린 그릇된 관행이 생각보다 많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마주치는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관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청렴과 정직으로 일관되려 노력하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신뢰로 빛나는 가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어 밤하늘이 아름답듯 인간의 가치는 가슴 속에 양심이 빛날 때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1등 한 날’이라는 작품은 제 아버지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로지 가정과 일만 알고 사는 분입니다. 주변에서도 범 없이도 잘 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봐 온 아버지는 인생에 있어 잔피와 게으름, 거짓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다고 느껴질 때도 많았지만, 성인이 되고 보니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도 흔치 않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많습니다.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을 두고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래서 당장의 큰 별이는 못하더라도 편법은 이용하지 않았던 양심은 시간이 지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불법 도구의 사용으로 어물을 압수당하고 장사 할 자격을 잃은 사람들과 달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느리지만 올곧게 자신의 일은 한 아버지는 남들이 장사 할 수 없을 때도 혼자서 당당히 장사 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의 가치는 오래갈 수 없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종종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누가 알아준다고 저런다냐” 하시면서 답답해 할 때가 많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엄마, 양심이 먼저 알아요!” 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마음은 한 번 길이 나기 시작하면 습(習)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이스크림과 통닭 몇 마리를 두고 어떻게 처리 할지 고민하던 공무원의 이야기 ‘다음은 없습니다’도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작은 것부터 올바르게 지켜가려고 했던 맑은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을 거치면서 단단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 속에 진짜 ‘나’와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른 길보다 그렇지 못한 길의 유혹이 더 세고 달콤합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청렴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하지 못한 신도증’을 읽고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일하지만 가족의 입장료는 눈감아주는 데서 오는 내적 갈등을 적은 수기글로, 정당하게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국립공원 안 사찰 신도증을 발급했지만, 결국에는 전해주지 못한 채 책상 속에만 간직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형수가 공원 내 있는 절에 다니는 신도는 맞지만 아들이 국립공원서 일하는데 입장료 면제를 위해 신도증을 발급받는 것은, 돈 낭비라 생각하실 어머니 걱정에 비록 전해드리진 못했지만 글쓴이 양심의 가책은 덜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 독서실의 매니저로 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지는 회원이 생겼고, 저하고 친밀감이 있는 회원들은 이용 기간을 더 주기도 합니다. 형평성상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하며 넘겨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 한 편에 찝찝함으로 남았는지, 이 글에서 부정과 부패는 바늘도둑부터 라는 문구가 특히 와 닿았습니다. 편협한 마음의 길은 더 빨리 나고, 오래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정해야겠습니다.

저한테는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6년간 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던 동생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수기 중 유독 ‘양심방역’이라는 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주는 초조함으로 여기저기 눈치 보는 상황에서도 공부하기 위해 돈을 버는 모습이 제 동생의 모습과 겹쳐서 안쓰럽기도 했지만,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긍정의 마인드로 삶에 임하는 자세는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에게서 배우는 청렴’이라는 글은 대학교 학생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두발로 직접 뛰면서 고군분투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투표를 청탁하려는 엄마가, 아들과 아들 또래 젊은이들에게서 청렴에 대해 배우게 되는 모습을 담은 수기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우선 시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어도 남한테 더 받기 위해서, 타인의 희생으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소수만이 청렴과 정직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연신 언론을 통해 접하는 사회 경제의 부정적인 소식도 많은데다, 경쟁사회가 주는 어딘지 모를 딱딱함 속에 나도 모르게 정도(正道)가 아닌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충분히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렴에 대해 고민하고,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고, 새로운 희망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청렴. 양심. 정직은 더 이상 위인들한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사회의 혼탁하고 부패된 모습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연에서 소개된 것처럼 정의롭고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청렴부터 소신껏 지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곧 조직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청렴과 정직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의 투명도는 올라가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렴과 정직은 삶의 진리이자, 나라를 지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청렴으로 밝히는 불빛들이 모여, 그린라이트로 빛나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꿔 봅니다.

